

## 티타늄 소재의 바티스카프: 피프티 패덤즈 컬렉션에 합류한 대담한 모델

1956 년 탄생한 이래 바티스카프 라인은 블랑팡 다이버 워치 컬렉션의 주요 라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전 모델이 보유한 유산, 그리고 시크하고 스포티한 스타일을 계승하는 바티스카프 라인의 신제품은 다양한 장점을 지닌 티타늄 소재 케이스를 탑재했다.

블랑팡의 새로운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는 그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 아방가르드한 다이버 워치는 심해를 탐험한 오귀스트 피카르(Auguste Piccard)가 고안한 물 속 장비의 특별한 기능을 떠올리게 한다. 정확성과 다양한 활용성으로 높은 명성을 지닌 바티스카프 모델의 주요 기술적인 특징과 더불어 이 제품은 오리지널 피프티 패덤즈에서 이어져 온 현행 라인에서는 처음으로 티타늄 케이스를 탑재한 점이 눈길을 끈다. 블랑팡이 티타늄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1960 년대 초반 미해군의 폭탄 제거 팀을 위해 특별 제작한 MIL-SPEC II 모델 시리즈에 티타늄을 이미 채택한 바 있다. 모던 다이버 워치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피프티 패덤즈를 1953 년 선보인 이래 다이버 워치 부문에서 개척자 역할을 해온 블랑팡은 타임피스에 혁신적 소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선구적 정신을 보여주었다.

티타늄은 다이버 워치에 어울리는 안정적인 합금으로 충격, 압력, 부식에 대한 높은 저항성을 포함해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티타늄은 낮은 밀도 덕분에 특히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지름 43mm 에 30bar(약 300m) 방수 가능한 날렵한 실루엣이 돋보이는 새로운 바티스카프 케이스는 새틴-피니싱 처리한 그레이드 23 티타늄으로 제작했다. 시계 업계에서는 사용되는 일이 드문 이 같은 하이엔드 티타늄은 상당한 양의 기계 가공 과정이 요구되며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 완성된다. 짙은 그레이 컬러 다이얼은 수작업으로 버티컬 새틴-피니싱 처리해 모던하면서 매트한 효과를 자아낸다. 또한 바티스카프에서 전통적으로 선보여온 빛을 발하는 바통 형태 바늘과

기하학적인 아워 마커와 더불어 새틴-피니싱 처리한 세라믹 인서트와 리퀴드메탈™ 바늘을 갖춘 새틴-피니싱 처리한 티타늄 베젤이 함께 조화를 이룬다.

스포츠 시계 부문에서 높은 명성을 자랑하는 인하우스 칼리버 1315 가장착된 이 새로운 바티스카프는 기술적이고 정밀한 시간 계측을 자랑한다. 높은 정확성과 성능을 추구한 결과 탄생한 이 5 일 파워리저브 가능한 셀프와인딩 무브먼트는 자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갖추고 있다. 또한 투명한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탁월한 피니싱이 단연 차별적 매력을 전한다. 스네일과 챔퍼링 처리한 브리지가 샌드블라스트, 새틴-피니싱, 스테일 처리한 골드 로터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새로운 모델은 NATO, 짙은 그레이 세일클로스(sailcloth) 스트랩 혹은 새틴-피니싱 처리한 그레이드 23 티타늄 브레이슬릿을 매치해 선보인다. 티타늄 브레이슬릿 디자인은 피프티 패덤즈 모델에 탑재하는 브레이슬릿과 동일한 것으로 바티스카프 타임피스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그레이드 23 티타늄 소재는 다양한 피니싱 처리를 통해 매력적인 컬러 뉘앙스를 보여준다. 티타늄 소재의 새로운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가 블랑팡 대표 라인의 역사를 이어가는 후계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을 입증하며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 너머로 보이는 새로운 수평선을 향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간다.